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73주년 개교기념식

- 일 시 : 2019. 10. 14.(월) 11:00
- 장 소 : 문화관 중강당

# 식 순

## 1. 개 식

2. 국민의례 ----- 일 동

3. 장기근속 공로 표창 ----- 총 장

- 장기근속 표창 : 40년, 30년, 20년 근속 교직원

4. 학생 표창 ----- 총 장

- 관악봉사상 표창
-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표창

## 5.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

- 선정경위 보고 ----- 기획처장
- 선정증서 수여 ----- 총 장
- 수상 소감 -----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6. 기 념 사 ----- 총 장

7. 축 사 ----- 총동창회장

8. 축 가 ----- 음대 남성중창단

9. 교가제창 ----- 일 동

10. 종 료

# 장기근속 공로 표창

## ■ 40년 근속 (4명)

### <직원 4명>

입학본부 중앙도서관	선임행정관 담당관	황창모 김순옥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선임주무관 담당관	최숙희 이선애
---------------	--------------	------------	----------------	--------------	------------

## ■ 30년 근속 (24명)

### <교원 17명>

인문대학	교수	이영주	의과대학	교수	최영민
사회과학대학	교수	홍기현	치의학대학원	교수	정필훈
자연과학대학	교수	김명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최순철
	교수	김성근			송영욱
	교수	김 원			
	교수	노태원			
공과대학	교수	김성준			
	교수	서광석			
	교수	성원용			
	교수	전국진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윤여창			
	교수	한재용			
의과대학	교수	박경찬			

### <직원 7명>

정보화본부	담당관	최영숙
중앙도서관	행정관	이차권
공과대학	선임주무관	이종일
농업생명과학대학	선임행정관	한경석
의과대학	담당관	최영태
행정대학원	선임주무관	황미란
보건대학원	주무관	홍택기

## ■ 20년 근속 (67명)

### <교원 64명>

인문대학	교수	김기현	인문대학	교수	이재영
	교수	김현균		교수	전형준
	교수	박찬국		부교수	정호근
	교수	손창용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철희
	교수	유은정	자연과학대학	교수	박태성

## 학생 표창

자연과학대학	교수	박용선	의과대학	교수	김정환
	교수	유재준		교수	김만호
공과대학	교수	김명수		교수	김명아
	교수	김성철		교수	김수웅
	교수	김영오		교수	김연수
	교수	김재정		교수	김희수
	교수	노종선		교수	박규주
	교수	송성진		교수	박중신
	교수	유상임		교수	방문석
	교수	이정동		교수	서길준
	교수	이종찬		교수	윤정환
	교수	장지영		교수	임영진
	교수	조남익		교수	조비룡
	교수	조맹효		기금교수	민성원
	교수	주영창		기금교수	이지호
	교수	한무영		기금교수	정영섭
	교수	홍석윤		기금교수	정중기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국형		기금교수	정희순
	교수	김영호	행정대학원	교수	임도빈
	교수	김현중	치의학대학원	교수	김현정
	교수	나승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균
	부교수	노희명			
	교수	안동환	<b>&lt;직원 3명&gt;</b>		
	교수	오기봉	경영대학	담당관	우윤경
	교수	유상열	약학대학	행정관	전수진
	교수	황인규	의과대학	선임주무관	전진희
미술대학	교수	문 주			
	교수	심철웅			
	교수	이용덕			
사범대학	교수	김동일			
	부교수	박병익			
약학대학	교수	김상건			
	교수	김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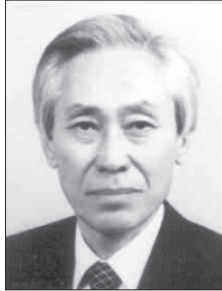
### ■ 관악봉사상 : 3명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구남훈	의료 소외지역 · 소외계층 대상 의료 봉사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윤찬주	국내 · 외 봉사활동 적극 참여 및 리더십 발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서경	학내 · 외 복지 현장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봉사활동

### ■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전 입상 : 6명

최우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류철환	• 빗물이 모여 흐르는 하나의 강물처럼
우수	의과대학	의학과	이윤규	• 자기실현의 연장선 속 사회공헌
	간호대학	간호학과	유창민	• 단기봉사는 장기봉사의 한 장면
장려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윤유민	• 안녕, 빈민의 순간들
	인문대학	언어학과	동희진	• 나의 100시간이 누군가의 200끼로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하림	• 찾아야만 보이는 곳

#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故 정영호 (鄭英昊) / 1924. 8. 19. (1994. 3. 17. 작고)

▶ 학력

1947 ~ 1950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 1970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박사

▶ 경력

1942 ~ 1946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징모처 제3분처 한교전지공작원, 중화민국 제3전구 제1정진유경중대 사령부 대일책반 공작대원  
1951 ~ 1953 진주농과초급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1953 ~ 1975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75 ~ 1989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1980 ~ 1983 한국식물분류학회 회장  
1986 ~ 1988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  
1992 ~ 1994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회장

▶ 상훈

1963 대한민국 독립 유공 표창  
1976 제8회 하은 생물학상 수상  
1982 국민훈장 동백장  
1988 국민훈장 모란장  
1990 건국훈장 애족장

▶ 저서

1989 정영호식물학논선 1~7집  
2005 아름다운 식물 이야기

▶ 공적사항 요약

故 정영호 선생께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활동하시는 등 우리나라의 독립에 기여하신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독립 유공 표창 및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학문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 기부를 통하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셨습니다. 본교 문리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교수, 한국식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는 동안 한국 관식식물과 담수조류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미망인께서 본교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후원해주신 약 200억 원은 본교 기초학문 발전 및 후학 양성, 아시아 지역 아동들의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나눔의 정신 확산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기념사

오늘로 서울대학교는 일흔세 번째 돌을 맞습니다.

생일은 스스로를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나 조직을 가능케 한 주변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성 속에서 태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기에 스스로 기쁜 날이며,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고 보탬이 되기에 그 탄생을 주변에서 축복받는 날인 것입니다. 물론 마냥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생일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이기도 하며 때로는 긴장과 근심 속에서 보다 밝은 앞날을 다짐하고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개교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있게 해준 국민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봅니다. 과연 우리가 서울대 개교를 가능하게 했던 국민의 선의와 기대에 부응했는지, 행동과 처신에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책임져야 하는 저는 저 자신부터 총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함의 징표는 스스로를 엄격히 진단하고 개선의 길을 찾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존재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국민의 자랑이라면 이는 서울대가 만인을 위한 지적(知的) 뛰어남의 토대이며, 이 뛰어남을 함양하여 그 가치와 재능을 국민 모두를 위해 힘쓰는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월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궤적은 특별히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란한 성과나 화려한 수사(修辭)를 추구할 경우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5만 구성원과 36만 동문 절대 다수가 화려함이나 현란함을 멀리 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이에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은 이처럼 내실 있는 변화를 묵묵히 추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질책, 요구, 그리고 기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의 실현에 앞장서 달라서 국민 전체의 염원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70여 년 간 수월성과 공공성을 추구해온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며 단순한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변화, 그리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들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신실한 실천이며 전진입니다. 우리 서울대인들은 이 노력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공감하시리라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간략히 몇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 축사

첫째, 법인화된 서울대에 맞는 포괄적인 법제를 정비하고 미래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2010년 서울대 법인화법이 졸속으로 통과되어, 법제상으로 미비한 점도 많고 서울대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미래상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 재정립위원회'는 이미 활동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다양한 제안과 실행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 졸업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모아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수월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제 간 교육 및 융합 연구를 가로막는 각종 규정의 정비, 연구비 관리제도의 전폭적인 개선, 그리고 엄정한 평가에 근거한 학문단위의 선별적 지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업과 연구를 한 단계 질적으로 향상 시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미래 발전 전략을 선도할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AI(인공지능) 연구 교육 활성화와 산학협동을 위해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낙성대 벤처밸리와 해동 AI 연구원을 위한 구상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도 개교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내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에 꼭 필요한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서울대가 앞장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본부에서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께 또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서울대인 여러분!

1946년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지만, 곳곳이 버티면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유다르 갈등과 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수월성과 공공성이라는 불변의 가치를 지켜내고 추구하는 책무를 새로이 다짐하게 되는 개교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946년 개교 때보다 더 크고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73돌 개교기념일을 맞아 스스로를 다잡고 다 함께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총장 오 세 정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과 전수안 이사장님, 바쁘신 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선후배 동문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교 서울대학교의 개교 73주년, 개학 124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40만 동문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 드리게 되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공로패와 표창장을 받으시는 교직원 분들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이름을 빛낸 후배 재학생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되신 고 정영호 동문님 유가족 분들께 삼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수여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총동창회 관악회 재단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게는 생소한 바이오 등의 연구 주제 이야기를 들으며, 노벨상을 꿈꾸는 젊은 교수들의 참신하고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젊은 교수 시절이 생각났고 그동안 성장해온 모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교가 지닌 젊음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대는 저보다도 젊습니다. 개학원년으로는 124주년이지만 600년이 넘는 역사의 대학을 비롯해 세계 명문 대학에 비하면 아직 젊은 대학입니다. 그러나 이 젊음 또한 우리들의 힘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을 이겨 나갈 젊음이 있습니다. 총동창회 또한 이러한 시련을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더 단단한 밑바탕을 다지고 모교와 나라를 위하는 동창회로 더욱 힘찬 발걸음을 할 것입니다.

저희 총동창회는 올해로 50주년이 됩니다. 더 역사가 깊은 단과대학도 있지만 모교와 동문 간의 화합을 위해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성장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큰 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10월 20일, 가을빛 짙어가는 캠퍼스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홈커밍데이가 열립니다. 또 이달

# 교 가

30일에는 오후 6시 문화관 대강당에서 총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세계를 누비는 정상의 음악계 동문들과 모교 재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다채롭고 화려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모든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으며, 모교 개교 73주년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신수정

작사 이 병 기  
작곡 현 제 명



1. 가 슘 마 다 성 스 러 운 이 - 념 을 품 - 고  
2. 단 일 해 온 말 을 쓰 는 조 - 출 한 겨 - 레



이 세 상 의 사 는 진 리 찾 는 이 길 을  
창 조 하 기 좋 아 하 는 명 석 한 머 리



씩 씩 하 게 나 아 가 는 젊 은 오 누 들  
새 문 화 와 새 생 명 을 이 루 어 가 며



이 겨 레 와 이 나 라 의 크 나 큰 보 람  
즐 겨 하 고 사 랑 하 는 우 리 의 조 국



뛰 어 나 는 인 재 - 들 - 이 다 모 여 들 어



더 욱 더 욱 융 성 하 는 서 울 대 학 교  
은 누 리 에 빛 을 내 는 서 울 대 학 교



## 제73주년 개교기념식